**삿1137 Note**

**◆ 호크마 주석**

성 경: [삿11:37-39]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입다의 딸이 죽어 번제물이 되었는가 함이다.

37절 하반과 38절 하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란 말(\* )은, 실상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라고 번역되어야 하며,

또 39절 하반의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고 한 말(\* )은,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하나님께 올려 바침 이되었다는 것(31절의 "번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녀가 평생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된 것을 가리킨다.

출 38:8참조.

출3808. 그리고 그가 황동으로, 회중의 성막의 문에서 모여[짜바:(군대 또는 하인들이)집결하다,회집하다,싸우다,소집하다,수종들다,전쟁하다], 수종드는(짜바) 부인들의 거울[마르아:이상(異象),거울,환상(幻想)]들로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 황동으로 그것의 발을 만드니라,

중세대(15세기) 이전에는 입다의 서원 실행이 그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중세대 이후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만 그녀로 하여금 평생도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처녀로 바쳐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이 옳다고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입다의 성격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할 인물이 아닌 까닭이다. 그는 자기를 등용하려고 찾아 온 길르앗 장로들의 청원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 들였었다(7절). 9절 참조.

(2) 입다가 암몬 왕에게 전한 말(15-26)을 미루어 보아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적(事蹟)도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 만큼, 그가 구약 율법에 대하여 무식한 인물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까닭이다.

구약 율법에 자녀를 불로 태워 바치는 것은 극악한 죄로 규정되어 있다(레 18:21, 20:2-5).

(3) 입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인물이었으니 만큼(9절 끝, 11절 끝), 그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을 범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만일 입다가 하나님이 엄금하시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는 레 20:2-5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로서 6년 간이나 역사하고 죽었다(12:7).

(4) 무엇보다도 신약성경이 입다를 신앙 인물로 칭찬하기 때문이다(히 11:32).

Ω히1132.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말하랴? 이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왕국들을 제압하고,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을 실행하고, 약속들을 손에 넣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맹렬함을 끄고, 칼날을 벗어나고, 약함에서 벗어나 강력해지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고, 외인들의 군대들을 패주시켰던 기드온에 관해, 바락에 관해, 삼손에 관해, 입다에 관해, 또한 다윗과 사무엘에 관해, 또 대언자들에 관해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임이라.

우리는 입다의 행적에서 배울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용감하게 실행한 그의 진실성과 및 그의 신앙 용단이다(35절 하반, 39절 하반).

그리고 그의 실행력(實行力)의 모본을 따라서 그의 딸도 경건의 법에 잘 순종한 사실이다(36절 상반). 시 15:4 참조.

시1504. 사악한 자(마아쓰:내쫓다,사라지다,증오하다,내어버리다,업신여기다,멸시하다,경멸하다,싫어하다,거절하다,비난하다,버리다,완전히,악한 사람)는 그의 눈들에서 멸시당하나, 그는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그들을 존중하나이다. 그 자신의 해로움까지 맹세하나, 바꾸지 않는 그 자이며,